

Sawatdee Krop? 어느 덧 또 2 개월의 세월이 흘러 또 다시 나의 사랑의 이야기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를 위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받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여기 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위세가 꺾이는 상황으로 변모되어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 태국에서는 가을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계획한 사역들이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파야우 성경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역은 코로나 19 의 상황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로 섬긴 과목은 성경해석학과 성경연구 방법론 두 과목이었는데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 월 24 일이면 이번 학기의 강의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2020 년도에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되었던 졸업식을 거행하는 것, 이전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다시 모여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행사, 그리고 신학교 설립 55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에 모집되는 신입생들 중에 5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생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1 년에 1000 불 정도 필요하게 되며 3 년 혹은 4 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전도 및 교회개척 사역을 위해서는 금년에 두 교회를 직간접으로 재정 및 사역 지원을 할 것을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전면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4 월부터는 전면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우리 파야우 성경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전도 및 교회 설립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태국 북부의 라오스 접경 지역에 있는 암퍼 뽕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달에 500 불 정도의 사역자 지원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3 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러면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도 금년에 적어도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지난 해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결국에 불행하게도 무산되었던 것으로 태국 남부의 부켓 근처에 있는 팡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것을 1 년을 뒤로 미루어서 다시 개최하기로 한 일입니다. 교회 설립 30 주년 행사로 계획된 것이었는데 결국은 31 주년 기념 행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경 세미나는 여기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태국 제 2 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치앙마이에서 개최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30~40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미화로 약 2000 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부터는 통역이 없이 제가 직접 태국어로 강의하는 상황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보통 2 박 3 일 또는 3 박 4 일 정도의 기간에 숙식을 같이하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성경 세미나 사역을 위해서 그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또 제가 태국어로 강의하는 문제를 위해서 적극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